

날짜 2022-07-24(D1) 본문 창4:19, AC.405-411
번호 2317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35, '큰 영화로신 주'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쉴라를 일으키시는 주님’

시작 주기도
찬송 찬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창4:19, AC.405-411
찬송 찬35, ‘큰 영화로신 주’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세 교회 만남** 지난 21일(목), 공주농아교회(서미례 전도사), 공주 사랑의교회(안병숙 목사, 나규봉 장로) 및 우리 한결같은교회 등 세 교회 목회자들 간 만남이 공주사랑의교회에서 있었습니다
- ② **변준석 형제 호주 워홀** 변준석 형제가 다음 달 16일, 호주 워홀 떠납니다. 서호주로 떠나는데 언어와 사람, 환경과 상황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기도, 축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창4:19)

를 본문으로, **‘라멕의 때에 아다와 쉴라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이라는 이단의 여섯 번째 후손으로, 교회의 황폐함을 상징한다는 거, 교회가 황폐해졌다는 건 주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새 교회는 꼭 이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황폐한 상태에 도달해야만 교회가 주님을 모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두 아내 중 아다는 그때 일어난 새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쉴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각각 상징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사후 드러나게 될 속 사람의 상태에 있으며,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집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에 관한 이런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시편 기자의 권면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 앞에서 저의 할 도리만 다하며 살겠습니다. 곧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체어리티의 삶에 힘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